

여수 박람회 개최 신항 일대 바다 쓰레기 오염 심각

해양폐기물 70t ... 환경 정비 시급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주요 시설이 들어서는 여수신항 인근 지역의 해양 환경이 크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해양 환경 개선 프로젝트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9일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여수신항 해양 환경 조사' 자료에 따르면 여수신항 인근의 수질과 저질(바다 퇴적물 및 토양)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인데다 해양폐기물이 70t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신항 주변의 수질 오염도는 2~3등급 수준이며 항내 일부 지점의 경우 3등급 기준을 초과, 수산 생물의 서식 및 양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등급 수준은 해양 관광 및 여가 선용 등에 적절하지 않은 수질로서 공업용 냉각수, 선박의 정박 등 기타 용도로 쓰이는 수준이다.
여수신항 인근의 바닷물 투명도도 2~2.5m로, 부산 해운대 인근의 4.3

m에 비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특히, 여수 세계박람회의 대표적 시설물인 'BIG O(Big Ocean)'가 설치되는 여수신항 파체제(파도 완화 구조물) 내부 지역과 북방파제 지역의 수질 오염도가 3등급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 여수신항 앞바다 내의 표층 퇴적물에서 부패와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산화발성황화물(AVS)의 농도도 일본 환경기준치의 6배 이상에 달해 수산 생물이 사실상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신항 내부 지역의 퇴적 표층 50cm까지 오염이 진행됐으며 오염된 퇴적물의 깊이는 'BIG O'가 들어설 파체제 인근이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해양 폐기물(바다 쓰레기)은 신항 부두 50m 이내에 약 70t이 투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수신항 해양 환경 조사'에 나선 남해수산연구소는 결과 보고서를 통해 "여수엑스포의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육상의 오염원 차단, 오염 퇴적물 제거, 해수 유통 등 해양환경 관

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0년부터 2012년 중반까지 여수박람회의 주요 시설물이 들어서는 여수신항 일대에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박람회 이후에도 여수가 해양관광 및 생태환경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 관계자는 "올해 말 여수신항 인근의 바다쓰레기 정비사업 계획이 서 있다"며 "내년에는 여수 연안에 대한 보다 정밀한 환경 평가를 통해, 퇴적물 제거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욱·채희중 기자 tuim@

▲빅 오(Big-O)=여수세계박람회장 핵심 전시시설로 Big Ocean의 줄임말. '빅 오'는 엑스포장 전시구역 앞의 오래된 브이(V)자형 방파제를 재활용함으로써 양 끝단을 탬으로 연결해 대형 바다전시장으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주요 시설은 오션타워(Ocean Tower)와 바다길(Seawalk), 아쿠아리움 등이다.



2008 광주비엔날레 폐막

현대미술의 향연인 2008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 폐막식이 9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가운데 비엔날레 발전에 공헌한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안규철 원장 등이 광주시로부터 유공 감사패를 받았다. <관련기사 16면>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전남 제조업체 84% 환리스크 관리 대책 없다

광주상의 조사 ... 중소기업 90%가 무방비

광주 하남산업단지내에서 기계구조물을 생산해 북남미지역에 수출해 오고 있는 D업체는 지난해 10월 이후 환율 불안 때문에 웃고 울기를 반복했다.
D업체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년 새 달러당 300~400원까지 올라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높아졌으나, 구리·니켈 등 원자재값이 70~90% 상승하

는 바람에 수출 이윤을 뽕깡 까먹고 말았다.
이 업체 관계자는 "평소 환보험 등에 관심은 있었으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유가 하락과 함께 최근 원자재 가격이 크게 떨어져 다행이지만, 언제 다시 원자재난이 벌어질지 몰라 원자재 물량 확보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전남지역 10개 제조업체 가운데 8개 이상이 환리스크 대책을 세우지 못해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에 심각한 경

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100개사를 대상으로 '환율 불안에 따른 기업 애로와 정책과제'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83.8%가 '환 위험 관리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90.5%가 환변동에 무방비 상태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율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 10월보다 원자재 구입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81.2%였으며, '불변 및 하락'은 18.8%에 그쳤다.
환율 상승은 수출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실적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느냐

는 질문에 '불변'이 65.5%였고, '증가'와 '감소'로 응답한 업체는 각각 23.6%, 10.9%였다.
응답업체들은 최근 환율 불안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제조원가 상승(60.0%) ▲자금조달여건 악화(12.9%) ▲환리스크 실패(12.9%)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11.4%) 등을 꼽았다.
응답업체들이 밝힌 적정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951~1,050원이 가장 많았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실물 경제 회복과 함께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율·금융시장 안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특히 재정 지출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경기부양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영암·장성·담양·해남·영광 도시가스 조기 공급

黨政, 2013년까지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영암·장성·담양·해남·영광 등 전국 35개 지역, 435만 가구에 오는 2013년까지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최경환 수석경조위원장과 지식경제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잇따라 열고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농촌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계획은 2016년 이후까지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었으

나 오는 2013년까지 앞당긴 것이 다.
구체적 대상 지역은 ▲호남권과 제주권에 영암·장성·담양·해남·영광군, 남원·부안·무주군, 제주·서귀포시 등이며 ▲중부권 홍천·금산·속초·강릉·태안·태백·횡성·영월·동해·삼척·고성·옥천·영동·부여 ▲영남권 문경·상주·안동·영덕·울진·고성·창녕·거창군 등이다.
현재 지역간 도시가스 보급률은 수도권이 82%, 비수도권이 48%이다. 향후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따라 보급률은 2007년 64%(1천200만가

구)에서 2013년에는 78%(1천635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이 비율을 오는 2015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09년부터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2008년 250억원에서 2009년 1천7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당정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에너지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 등 별도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존' 신지애 LPGA 우승
미즈노클래식 >> 2편

무등중1회 홈커밍데이
• 일시 : 2008.11.15(토) 오후 3시
• 장소 : 모교교정
• 행사
- 1부 : 교정에서 친구들과 손잡기 외
- 2부 : 소승남들과 만남(연회)
이러 동창 벗님을 함께 합시다.
무등중 1회 동창회 cafe.daum.net/mudeung1
(전화:임성래 016-731-0061)

중고생 겨울방학 합숙특강!!!
기간 : 2008년 12월 30일까지
2편 1일 기출사, Power 강사님
서한샘에서 초청 임시실명화!!!
2008. 11. 19(목) 오후 2시 (금대문동연변센터)
예약할 수!!!
호남한샘학원
교계상담 : (061) 832-1111
홈페이지 : http://www.hosam.com

YB윤도현밴드
2008. 11. 29 SAT 7:30PM, 30 SUN 5:00PM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 062-220-0541, 1588-0766
티켓구매처 : 티켓마루, 티켓링크, 옥션티켓